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이 시 연

(서울장신대학교)

박 은 미

(서울장신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동학대의 이해를 위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체계에서의 인터넷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아동학대상담센터(www.childabuse.or.kr)의 공개상담실에 게시된 상담 사례를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에서 특정 경향성을 발견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제로 정리하였다. 첫째, 상담의뢰자 유형과 상담의뢰자가 학대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경로, 상담의뢰 동기·목적은 중심으로 상담의뢰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학대유형 및 특성으로 피학대자의 학대상황과 학대유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셋째, 피학대자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정형태 및 문제, 피학대자의 정서적 특성, 아동학대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실천적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내용분석, 상담사례

1. 서 론

1) 문제 제기

아동기에 건전한 발달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은 그 개인에게 치명적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다수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에서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의 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의 문제, 대처 능력의 문제, 우울증, 공격성, 낮은 학업성취도, 높은 율의 자살 충동 등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Augoustinos, 1987;

Belt and Abidin, 1996; Briere and Runtz, 1988; Farber and Joseph, 1985; Steele, 1986; Wind and Silvern, 1992; 박은미, 1999; 안동현, 2000; 윤희미, 1997). 개인에게 주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학대는 세대 간에 전달되고 비행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Kaufman and Zigler, 1984; Steele, 1986).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체계적으로 국가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동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2004년 8월 현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포함하여 20개의 거점센터와 17개의 소규모센터가 설치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7개 소규모센터가 설치되기 전인 2003년 한 해 동안의 전국 20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전국현황보고서에 따르면(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200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3,53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다. 2001년의 2,606건, 2002년의 2,946건과 비교하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2004년에는 17개 소규모센터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므로, 향후 아동학대로 신고·상담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년째를 접어들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피학대아동의 발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피학대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체계는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인식이 낮은 초기단계이므로, 아동학대 사례의 신고·상담을 증가시켜 학대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상담의뢰자들의 특성과 피학대아동들, 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대상황을 다양하게 접근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와 보고는 대체로 연구를 위해 고안된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설문조사나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자료들을 분석한 보고서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이들의 상담 내용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천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진행되었던 아동학대 상담사례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아동학대 상담의뢰자가 직접 기술한 내용을 통하여 신고·상담자, 피해자, 학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분석은 대표적인 비관여적 연구방법 중에 하나로써, 사회적 선호도 편향성(social desirability biases)이나 반응성(reactivity)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전환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루빈·바버, 1998: 457-459). 실제 아동학대 상담사례를 내용분석함으로써, 보편화된 특성을 분석·보고하고 있는 기존의 양적 조사연구들과 심층면접이나 참여, 관찰 등을 통하여 얻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들의 연구결과와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은 일반인과 아동학대 관련자, 피해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의사소통이나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도구로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 바, 인터넷상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최근 들어 인터넷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 아동학대 분야에서도 18개 지방 아동학대 예방센터 및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 중의 일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터넷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 일부 기관이나 개인들도 아동학대 관련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들 인터넷상담 사이트를 찾는 주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동기와 욕구에서 이들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는지, 이들이 의뢰하고 있는 아동학대 상황에는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과는 아동학대 관련 특징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활용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전국적으로 지방센터가 20개소 소규모센터가 17개소에 불과한 실정인바 거리상의 제약으로 예방교육 및 상담,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터넷상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상담인력을 개발하는 일이나 인터넷상의 예방교육과 홍보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인터넷상담 사례의 분석 자료는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학대아동과 학대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소수의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설문지를 통한 조사 연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사업 내용을 정리·보고하고 있는 현황보고 등을 보완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터넷상담 사례를 내용분석하여 아동학대의 이해를 위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체계에서의 인터넷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인터넷 아동학대상담센터의 상담의뢰자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인터넷 아동학대상담센터에 의뢰된 아동학대의 유형 및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인터넷 아동학대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피학대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고찰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데, 석박사학위논문들을 중심으로 보면, 1978년 권은주의 논문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6편에 불과하다가 199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4년 8월 현재 212건이 국회전자도서관의 검색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국내학술잡지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를 주제로 179건이 검색되었다.

대체로 이들 연구들은, 개념 규정이나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일반인이나 전문가의 인식에 관한 연구, 발생률 및 실태에 관한 연구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학대의 장단기 영향에 관한 연구로 분류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된 이후인 2001년 이후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 바, 신고의무자나 상담원에 관한 연구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매년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신고·상담자 유형에 대해서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 보고와 극소수의 자료가 있을 뿐이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는 2003년의 현황조사(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9-12)에 따르면, 2003년 전체 3,536건의 사례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9.1%인 1,029건이었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70.9%인 2,507건이었다.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의무자 중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1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교사(5.4%), 시설종사자(5.1%), 의료인(2.3%) 순이었는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비율이 보다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이웃·친구가 23.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19.0%), 친인척(10.4%), 경찰(6.3%) 순으로 보고되었다. 허남순(2003)은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52%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였으며, 28.8%가 친구나 친척, 21%가 익명에 의한 것임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 비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저조함을 지적하였다.

아동학대의 발생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현실 상황에서 두 개 이상의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90% 이상이 둘 이상의 학대를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었다(Kaufman and Cicchetti, 1994; 박은미 1999). 홍강의(2000)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신체학대 발생률은 23.5%이며 그 중 구타 발생률은 20.2%, 폭행 및 상해 발생률은 9.6%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신체학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1년에 20회 이상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에 기초하여 정서학대는 전체의 19.0%, 방임의 발생률은 20.0%, 성학대는 1.1%임이 보고된 바 있다.

피학대아동의 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학대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대를 받은 아동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Egeland, Jacobvitz and Sroufe, 1988),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은 공감 능력의 결여, 공격성, 반사회성, 충동성, 수동성, 무력감 등의 정신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Sroufe, 1988). 신체학대의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기나 성인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에 손상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한 연구도 제시되고 있는 바(Briere and Runtz, 1988; Carmen, Rieker and Mills, 1984; 박은미, 1999),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학대는 분노와 공격성(Briere and Runtz, 1990), 낮은 학업 성취도, 수면 장애, 약물 중독, 그리고 자살 충동(Farber and Joseph, 1985) 등과 연관되어진다고 한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신체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

에 대한 반응 양식이 약하며(Egeland, Breitenbucher and Rosenberg, 1980; Straus, 1980),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Mash, Johnston and Kovitz, 1983). 최근까지 정서학대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소수의 연구에서 정서학대를 받은 양육 경험과 낮은 자아 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낮은 학업성취, 도벽, 거짓말,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가 보고되었다(Briere and Runtz, 1990; Briere and Runtz, 1988; 김혜련, 1994). 안동현(2000)은 신고된 아동에서 나타나는 후유증을 연구한 결과, 자아기능 및 개념의 손상, 불안, 기본적 신뢰감 형성에 결함을 보고하였으며, 충동조절의 이상에 따른 공격성이나 또래, 형제 관계에서 남 괴롭히기, 괴상행동 등의 문제를 보이거나, 자학적, 자기 파괴 행동으로서 자살 시도 및 위협, 자해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실태 및 현황이 파악되고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이나 영향 등이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에머만(Ammerman, 1998: 118-119)은 아동학대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연구 분야를 17개 정도로 분류하여 제시한 표를 인용하고 있는 바, 연구주체가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술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설문 조사와 문헌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극히 소수의 질적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황옥경(2004: 69)은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출간된 아동학대에방협회의 세미나 자료집에 실린 110편의 연구 경향을 분석한 보고에서 외국의 많은 아동학대 관련 연구들이 사례분석 혹은 심층면접, 관찰평가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분야에서 연구방법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아동학대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방법론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방법론적인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Augoustinos, 1987; Belsky, 1993; Belt · Abidin, 1996)

아동학대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피학대아동과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가능한 단계에 왔음을 지적하며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방법이 고안되어 학대받은 아동과 가족을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연구들이 기대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Ammerman, 1998: 130).

연구방법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윤혜미(1995)의 조사에서 질문지와 삽화를 이용한 양적조사를 보고한 바 있고, 가장 최근에 학대받은 아동들의 체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고미영(2004)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그 외 소수의 집단 치료프로그램이나 사례보고가 있다.

3. 연구방법 및 설계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아동학대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실(www.childabuse.or.kr)에 게시된 상담 사례이다. 연구방법은 상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텍스트로

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사용하는 연구방법(Weber, 1990: 9)으로써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양적 분석을 통하여 메시지를 요약한다(Neuendorf, 2002: 10). 특히 루빈과 바비(1998: 457-459)는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내용분석 방법은 기관의 사례기록, 실천가의 과정기록, 신문 또는 TV의 기사 또는 사설, 책 또는 전문학술지 논문 등 이용가능한 기록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직접 사회사업실천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제시하였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개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사례기록을 내용분석한 홀리스(Hollis)의 연구(1949)에서 최근의 효행자들에 관한 기록을 분석한 연구(Sung, 1998), 사회복지 전문학술지에서 '환경 속의 개인'에 관련된 개념을 컴퓨터를 활용해 내용분석을 실시한 연구(Rogg and Cox, 2001), 영화에서 묘사되는 사회복지사의 이미지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Freeman and Valentine, 2004)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질적 자료로 이루어진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를 양적 자료로 전환함에 있어서 내용분석 연구방법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체계 개입의 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다양한 질적 자료들을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함으로써 어떤 유형(pattern)이나 주제(theme) 즉,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학대 아동 및 성인, 그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실천가의 개입 근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 연구의 전형적인 과정(Neuendorf, 2002: 50)에 따라서 진행되었다. 즉, 이론적 근거 → 개념화 → 조작화 → 코딩 설계 → 표본추출 → 코더 훈련 및 사전 신뢰도 검증 → 코딩 → 최종 신뢰도 검증 → 통계처리 및 보고서 작성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아동학대상담센터에서 인터넷상담을 시작한 2001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아동학대 상담의뢰자들이 인터넷상담실에 게시한 총 284개의 사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¹⁾ 모집단의 전체 사례에서 특정 주기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본 추출방법은 체계적 표집방법(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먼저, 전체 사례를 인터넷상담실에 게시된 일시에 따라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고, 이 중 1에서 10 사이의 무작위번호를 하나 선택한 후, 그 다음부터 매 5번째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총 55개의 사례 중 아동학대 경험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없는 사례 8건(응답독촉 3건, 부의 외도, 성인폭행사건, 장난, 답변에 대한 감사,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과정문의가 각 1건)은 제외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아동학대 경험과 상황에 대해 상담·의뢰한 47건의 사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1)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상담센터(www.childabuse.or.kr)에서 본 연구자 중 1인이 상담원으로서 상담에 직접 참여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있어서 아동학대상담센터로부터 상담 사례의 연구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개 상담실에 게시된 상담 사례만을 활용하였다. 또한 상담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본 연구에 인용할 경우 모든 인적사항은 삭제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4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에서는 아동학대와 인터넷상담에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념화와 조작화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²⁾

둘째 단계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사례를 분석틀에 맞추어 단위화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례를 만족스럽게 분류할 수 있도록 분석틀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수정한 틀을 다시 자료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인터넷상담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경향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 단위들 간의 중심 주제를 묶어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크게 6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연구자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아동학대 관련 경향성의 근거로서 상호배타적인 132개의 내용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딩은 연구자 2인이 직접 실시하였고 드러난 내용(manifest content)과 숨어 있는 내용(latent content), 즉 저변에 있는 의미까지도 코딩을 하였다.³⁾

넷째 단계에서는 각 범주로 분류된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사례의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하고 실험연구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중심으로 계량화하였다.

4) 신뢰도/타당도 검증

내용분석은 일반적으로 내용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고, 내용상의 차이를 측정하거나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주화의 원칙에 따라 코딩을 하도록 코더들(coders)을 훈련하며, 그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코더간의 신뢰도(일치도 혹은 시간경과에 따른 안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양적 내용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은 코딩 후에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게 된다(라이프·레이시·피코, 2001: 15). 그러나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하지 않고 질적인 용어에만 질적인 내용을 보고하는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내용분석의 결과를 주로 여러 사례에 있는 긴 인용의 형태로 제시한다(루빈·바비, 1998: 466).

내용분석 연구방법은 텍스트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Krippendorff, 2004: 18)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코딩에 있어서 코더들간의 일치도를 제시하기도 한다(라이프·레이시·피코, 2001: 15). 또한 내용분석에서 타당도가 일반적으로 문제이지만 내용분석에 대한 양적 접근법으로 연구한 내용의 구체성은 신뢰도를 높인다. 연구

2) 본 연구에서 적용한 기본틀 분석방법(이익섭·이윤로, 2004: 314)은 이전의 조사나 문헌을 참고하여 기본틀을 개발한다. 이러한 연구 분석틀은 자료수집과정이나 분석과정 동안에 변화될 수 있는 유연한 틀이다. 분석틀의 변수들이 연구 분석단위가 된다.

3) 루빈과 바비(1998: 462)는 드러난 내용과 숨어 있는 내용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경우 숨어 있는 내용을 코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뢰도와 구체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는 원하면 언제나 코딩, 재코딩하여 코딩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루빈·바비, 1998: 468).

이에 본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2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반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 선정에서 자료분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록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의 전개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2명의 연구자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차검증을 통한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시도하였다. 즉, 연구팀이 함께 분석틀을 설계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분석틀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아울러 단위화, 범주화, 계량화 등 자료처리과정에 있어서 각자 코딩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4. 결과 및 해석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되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학대유형은 사정기준에 따라 응급아동학대 사례인지 일반아동학대 사례인지, 혹은 아동학대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 사례인지를 판별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뢰자 본인이 신체학대, 정서학대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랐고, 학대라고만 언급한 경우와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자가 사정하여 학대유형을 분류하였다.

1) 상담의뢰자 특성

아동학대 인터넷상담실에 상담을 의뢰한 상담의뢰자의 특성 및 동기는 상담의뢰자 유형, 상담의뢰자가 학대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경로, 상담의뢰 동기·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담의뢰자 유형의 범주와 내용은 <표 1>과 같다.

상담의뢰자 유형은 피학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피학대자 본인, 이웃, 친인척, 교사, 파악되지 않는 사례로 범주화하였다. 학대를 직접 받은 본인은 전체 사례(n=47)에서 가장 높은 비율(53.2%)인 25건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⁴⁾ 성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분포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웃이 높은 비율(27.6%)로 나타났는데, 물리적으로 가까이 거주하는 옆집이나 이웃집에서 아동학대 상황을 직·간접으로 목격하고 상담을 의뢰하는 비율이 상대적

4) 현재 아동복지법(2000)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상담의뢰자들은 고등학생이나 고3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 정확한 연령을 표기하지 않고 있어서 편의상 고등학생으로 분류·보고하였다.

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와 비교해보면(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9-12),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신고자 유형은 피학대아동 본인은 1.5%에 불과하며, 이웃·친구가 23.8%, 부모가 19.0%, 친인척이 10.4%로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아동 본인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점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에는 신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직접 신고하기 어렵지만, 인터넷상담의 특성 상 인터넷 상담센터에는 아동,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익명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자유롭게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 상담의뢰자 유형

(n=47)

범주	내용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본인	초등학생	5(10.6)	25(53.2)
	중학생	4(8.5)	
	고등학생	4(8.5)	
	성인	4(8.5)	
	과약 안됨	8(17.1)	
이웃	학교친구·선후배	2(4.3)	13(27.6)
	동네친구	3(6.3)	
	이웃집·옆집	8(17.1)	
친인척	이모	1(2.1)	2(4.3)
	외삼촌	1(2.1)	
교사	어린이집	1(2.1)	2(4.3)
	초등학교	1(2.1)	
과약 안됨	-	5(10.6)	5(10.6)

상담의뢰자가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이상에 해당되고, 이웃의 범주에서도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밝힌 사례가 많아 아동학대 인터넷상담의 경우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상의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신고, 상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와 같은 신고의무자에 의한 상담의뢰의 빈도가 낮은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들(김은령, 1997; 김지윤, 2000; 이시연, 2000; 이지숙, 1997;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2; 허남순, 2003)과 일치한다. 그러나 신고의무자들의 경우에 학대의심 아동 발견 시 대처 방법으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겠다는 경향이 높다는 점(허남순, 2003: 221)으로 볼 때, 신고의무자들이 인터넷상담을 신고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상담이나 학대관련 문의를 위해 신고의무자들의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은 지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담의뢰자 중 피학대자 본인이 성인인 경우에 그 비율은 높지 않으나(8.5%), 아동복지법상 성인인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고3 이상을 18세로 추정하여 전체의 14.9%인 7건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인 인터넷 상담센터가 ‘아동학대신고·상담센터’였음을 상기

5) www.chilabuse.ac.kr은 2004년 5월까지의 아동학대신고상담센터였고, 이후 아동학대상담센터로 홈페이지의 이름을 변경한 바 있다.

하면, 성인인 이들의 방문 상담은 시사점이 있다. 이후 보고될 것인바, 이들은 법적으로는 성인 연령이지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학대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나, 배우자 폭력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어느 곳에서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학대를 받고 있거나 아동기 학대를 경험한 아동학대 성인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하겠다.

<표 2>는 상담의뢰자가 피학대자의 학대 상황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상담의뢰자가 피학대자 본인인 경우에는 직접경험으로 범주화하였고, 여기에는 현재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 아동기에 학대받았던 성인, 그리고 아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대를 받고 있는 성인이 포함된다. 또한 직접관찰/목격의 내용은 상담의뢰자가 학대 장면을 직접 본 경우, 학대 상황을 직접 들은 경우, 피학대자의 상처를 직접 본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담의뢰자가 학대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 상황의 소리만 듣고(예컨대, “아이 우는 소리와 손바닥으로 아이들을 때리면서 나는 소리가 거의 매일 들려옵니다.”) 상담을 의뢰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상담의뢰자가 아동학대 목격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상담을 의뢰한 사례는 간접경험/목격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2> 상담의뢰자의 학대상황 발견 경로

(n=47, 중복코딩)

범주	내용	빈도(건)	빈도(건)
직접경험	학대받고 있는 아동	21	25
	아동기에 학대받았던 성인	2	
	아동기부터 현재까지 학대받고 있는 성인	2	
직접관찰/목격	학대장면 직접 보고	8	24
	학대상황 직접 듣고	9	
	상처를 직접 보고	7	
간접경험/목격	목격자의 이야기를 듣고	1	1

상담의뢰자가 인터넷상담을 의뢰한 동기 및 목적을 탐색한 결과(n=47), <표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6가지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즉, 신고문의, 문의/조언요청, 도움요청, 하소연, 신고/고발, 정보확산, 답변 독촉, 기타 등으로 총 58건의 내용 중, 아동학대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15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다음으로는 학대 상황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에 대한 도움 요청이 14건, 학대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조언 요청이 12건, 하소연하는 내용이 10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동학대 인터넷상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상담의뢰자들이 학대 상황으로 인한 슬픔, 억울함,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뿐만 아니라 가출충동, 자살충동, 살인충동에 이르는 강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피학대자들이 극단적인 정서나 감정으로 진전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위기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해서는 24시간 인터넷

아동학대 핫라인 상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감정을 해소연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상담의뢰자들의 사례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인터넷상담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대를 직접 받거나 학대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대를 신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인터넷상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사례를 고발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로 옮기려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바, 신속한 정보 확산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상담 사이트가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상담의뢰 동기·목적

(n=47, 중복코딩)

범 주	내 용	빈도(건)	빈도(건)
신고문의	학대 신고 방법 문의	14	15
	살인충동에 대한 문의	1	
도움요청	슬픔, 억울함, 두려움, 증오	8	14
	자살충동	4	
	가출충동	1	
	살인충동(에 대한 두려움)	1	
문의/조언요청	학대상황 대처 방법 문의/조언	12	12
하소연	자살충동	4	10
	가출충동	1	
	자기연민, 분노	4	
	살인충동	1	
신고/고발	학대상황 신고/고발	4	4
정보확산	학대상황에 대한 정보 확산	3	3

2) 학대유형 및 특성

총 47건의 사례 중 본인이 학대를 직접 경험한 사례가 25건, 학대를 직·간접으로 목격한 사례가 22건이었는데, 학대 상황은 대체로 중복해서 발생됨이 확인되었다. 분석된 47건의 사례 중 16건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된 학대 상황이었다(표 4). 중복학대 중에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발생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신체학대와 방임이 함께 발생된 경우가 1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방임이 함께 발생된 경우가 3건 있었다. 신체학대만으로 상담한 사례는 9건, 정서학대만으로 상담되었던 사례는 8건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보고의 결과(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20-22)와 비교해 보면,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유형별 순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복학대의 비율이 본 연구의 경우는 57.4%나 되는 한편 전국보고의 경우는 39.5% 정도였고, 정서학대의 비율도 본 연구는 17.0%나 되는 반면, 방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복학대의 경우, 실제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대가 중복해서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고려해 보면(Kaufman

and Cicchetti, 1994; 박은미, 1999), 본 연구에서는 학대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중복지학대의 빈도가 아동학대예방센터보다 다소 높게 보고된 것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한편, 방임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연령 대의 직접 피해사례의 빈도가 전체의 반 이상임을 고려하면, 의식주나 교육적 방임의 주 피해연령대의 대상과는 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의료적 방임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주변의 신고·상담이었다.

<표 4> 학대유형의 비교

학대유형	본연구 : 빈도(%)	전국보고 : 빈도(%)
신체학대	9(19.1)	347(11.9)
정서학대	8(17.0)	207(7.1)
성학대	3(6.4)	134(4.6)
방임	-	965(33.0)
유기	-	113(39.5)
중복지학대	27(57.4)	1,155(39.5)
계	47(100.0)	2,921(100.0)

신체학대에 관련된 상담사례는 전체 학대상황 관련 상담 47건 중 76.60%인 36건이 해당되었다. 학대의 범주를 중복지학대 분류한 바, 손/발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경우가 44건(75.2%)으로써 가장 많았고, 다양한 형태로 벌을 주는 경우가 7건 있었으며, 꼬집기, 밟기, 유리컵이나 핸드폰 등을 던지기가 각각 2건씩 있었다. 그 외에는 깨물기, 목조르기, 찌르기, 벽돌로 머리 찍기, 일 시키기 등이 1건씩 있었다(표 5).

<표 5> 신체학대

(n=36, 중복코딩)

범주	내용	빈도(건)	빈도(건)
때리기	손/주먹이나 발로	36	44
	도구를 사용하여	8	
벌주기	밤잠 안 재우기	2	5
	무릎꿇어 엎드려 뺨치하기	1	
	앉았다 일어나게 하기	1	
	팔들고 있기	1	
폭력이라고만 표기	-	3	3
꼬집기	-	2	2
밟기	-	2	2
물건던지기	유리컵이나 핸드폰	2	2
깨물기	-	1	1
목조르기	줄을 사용하여	1	1
찌르기	연필이나 펜으로	1	1
머리를 찍기	벽돌로	1	1
일시키기	무겁고 뜨거운 밥통 들고 계단 올라가게 하기	1	1

상담의뢰자들은 대체로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학대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는데, 체벌에 사용되는 도구에는 쇠줄, 쇠파이프, 칼, 주걱, 삽, 야구방망이와 같은 치명적인 도구들도 있었으며 파리채, 혁대, 옷걸이, 대나무단소, 주걱 등 부적절한 도구들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손이나 발로 때리는 경우에도 집에서 도망 나올 정도라거나 ‘TV에 나오는 고문 수준,’ ‘주먹으로 머리가 깨지도록,’ 혹은 ‘11년간을 극심하게 맞았다’고 호소한 사례들도 있었다. 벌을 받았다고 한 경우에도 모두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내용들이었는데, 옷 벗기고 집 밖에 세워놓았다거나 밤잠을 재우지 않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200회 이상 시켰다’는 사례도 있었다.

신체학대에 관한 사례 총 36개 사례 중 38.9%인 14건의 사례에서 학대의 상처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멍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가 났다고 보고된 경우가 3건 있었다. 그 외 손톱자국, 흉터, 골절, 청력손상이 각각 1건씩 있었다(표 6).

<표 6> 신체학대의 상처

(n=14, 중복코딩)

범 주	내 용	빈 도(건)
상 처	멍	7
	피	3
	손톱자국	1
	흉터	1
	골절	1
	청력손상	1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47건의 학대관련 상담사례 중 68.09%인 33건이었으며(표 7), 이 중 가장 빈번한 상황은 위협이었는데, ‘차에 깔려 되지게 한다,’ ‘반말 한번 더하면 입에서 옆구리까지 가위로 찢어놓는다,’ ‘눈깔을 뽑아버린다,’ ‘삽으로 굶어버린다,’ 등과 같이 말로만 위협을 하는 경우와, 칼 등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이 욕하기였는데, ‘미친년’ 등과 같은 욕설로부터 ‘창녀나 되랴’와 같은 저주에 가까운 문장, ‘나가 죽어라,’ ‘보기 싫으니 나가 버려라,’ ‘너 때문이다’와 같은 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화장실이나 독방 같은 곳에 가두거나, 극도로 외출을 제한하는 문제를 상담의뢰한 경우나 고향을 치는 경우도 4건씩 있었고, 잔소리나 학업강요, 심부름강요, 울지 못하게 한다고 보고한 경우도 2건 정도씩 있었다. 산으로 데려 가거나 잘못에 대한 벌로써 밥을 주지 않거나 밥 먹을 가치가 없다며 굶긴 경우도 2-3건씩 있었다.

전체 47개 중 .06%인 3건이 성학대사례였는데 이 중 2건은 어린이집에서의 성학대 사건을 널리 알려달라는 목적으로 반복 게시된 동일 사례였으며, 1건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태권도장으로 보내 교육을 받던 중 사범이 옷을 입은 채 성행위를 흉내내었던 사례로써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동에게 영향이 있을 지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아동 및 관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성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전체 사례 47건 중 방임은 8.5%에 해당하는 4건이었는데, 4건 모두 중복학대사례로써, 1건은 신체

학대와의 중복학대였고, 3건은 신체학대, 정서학대와 함께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임의 내용은 방에 가두고 보호자가 외출하기, 밥을 안 챙겨주기, 목욕을 시키지 않기,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하지 않기, 집으로 못 들어가고 배회하기 등이 있었다. 방임의 경우에는 전국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21-22)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임의 빈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터넷상담의 경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빈도가 높은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임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7> 정서학대

(n=33, 중복코딩)

범 주	내 용	빈 도(건)	빈 도(건)
위협	언어로 위협	3	13
	흉기로 위협	6	
	물건을 부숴거나 던지며	4	
욕하기	심한 욕설(미친년 등), 저주	2	4
	존재(출생)부정, , 가치부정	2	
고함	-	4	4
가두기	화장실, 독방에	3	4
	외출제한	1	
굶기기	-	3	3
모욕주기	옷 벗겨서 집 밖에 세우기	2	2
잔소리	-	2	2
산으로 데려가기	-	2	2
못 올게하기	-	2	2
학업강요	-	2	2
(술)심부름시키기	-	2	2
언어적 폭력	-	2	2
애정철회	-	1	1

3) 피학대자 특성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대관련 상담사례에서 피학대자 47명 중, 남자는 21.28%인 10명이었고, 여자는 2배 이상이 많은 24명(51.06%)이었으며,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례가 13건 있었다(표 8). 2004년 전국현황보고서에서는 남녀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남 : 여 = 50.0% : 50.0%), 2003년 전국현황보고서에서는 남아가 53.8%로써 46.2%인 여아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성별을 알 수 없는 사례가 전체의 27.7%인 13건이나 되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대의 성차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카르멘 등(Carmen, Rieker and Mills, 1984)은 188명의 정신과 입원 환자에 대한 연구보고를 통해서 여성이 남성 보다 학대 역사

가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아동기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학대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8> 피학대자의 성별 분포

(n=47)

범주	내용	빈도(건)
성별	남	10
	여	24
	알 수 없음	13

한편 피학대자의 연령 분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9). 학대관련 총 47건의 상담사례 중 1건의 사례에서 2명의 아동(형제)에 대한 연령이 보고되어 총 48건에 대한 분포를 살펴본 바, 돌 안 된 갓난아기로부터 25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한 명에서 세 명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발달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학령전기가 13건, 아동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 10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8건과 4건,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4건 있었으며, 9건은 연령이 파악되지 않았다. 여학생으로만 표기된 2건의 경우, 내용으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바, 중학생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대체로 만 18세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구분되지 않는 18세 이상의 사례는 전체의 14.58%에 해당하는 7건으로 볼 수 있다.

<표 9> 피학대자 연령 분포

(n=48)

구분	내용	빈도(건)
학령전기	돌안된 갓난아기 1건, 어린이집사례 1건, 어린이1건, 꼬마 1건, 3세 1건, 4세 3건, 4-5세 추정 1건, 5세 2건, 6세 1건, 7세 1건	13
초등학생	8세 1건, 12세 1건, 13세 2건, 4학년 2건, 5학년 1건, 6학년 3건	10
중학생	중학생 2건, 2학년 2건, 3학년 2건, 여학생 2건	8
고등학생	고등학생 1건, 3학년 2건, 수능마침 1건	4
성인	20세 1건, 21세 2건, 25세 1건	4
파악 안됨	-	9

가정형태를 살펴보면, 일반가정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40.4%에 해당하는 19건이었고, 부자가정이 5건(10.6%), 모자가정이 2건(4.3%)이었으며 재혼가정도 6건(12.8%)이었다. 31.9%에 해당되는 15건은 가정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0). 특히, 한부모가정과 재혼가정에서의 학대관련 상담비율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정 중에서는 모자가정 보다 부자가정이 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내용 중에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것 많이 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도 봤어요. 지금은 제 차렐가 싶습니다. (아빠를) 신고해버리고 싶습니다.’ 라며 배우자 학대에 노출되었던 청소년이 부모가 이혼으로 부

와 함께 살면서 신체학대를 당하는 상황에서 모와 함께 살고 싶고 모가 불쌍하다는 느낌을 기술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친구가 ‘이혼 후 아버지의 성격이 포악해졌다며’ ‘엄마에게 다녀왔다는 이유로 혼내기 시작해서...’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출을 하거나, 아버지를 죽이거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내용의 상담을 의뢰하였다.

부가 자신의 폭력, 알코올, 성격 등의 문제로 모와 이혼하거나 모가 가출하여 자녀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녀 양육에 관한 책임을 갖게 되어 상당히 심각한 양육 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또한 이혼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분노가 자녀들에게도 요구되어서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만나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가출이나 자살충동, 살인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극단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은 시사점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혼으로 모와 살면서 모에 의한 학대상담을 한 사례는 없었으며, 계모와 사는 경우에는 계부모의 학대를 직접 신고한 경우보다는 간접관찰의 경우가 많았으며, 교사에 의해서 상담 의뢰된 사례의 경우,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엄마가 속이 터져 죽었으면 좋겠다’며 자녀가 겪는 계모에 대한 증오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특히 부가 양육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에 적절한 자녀 양육 기술을 습득하고 안정된 보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또한 이혼부부의 경우에, 이혼과정이나 이후,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이해될 필요가 시사된다.

<표 10> 피학대자의 가정 특성

(n=47)

범 주	내 용	빈도(건)
가정형태	일반가정	19
	부자가정	5
	모자가정	2
	재혼가정	6
	파악 안됨	15
가정문제	부부불화	5
	알코올남용	5
	가정폭력	3
	장애인부모	1
	파악 안됨	33

특정 가정문제가 드러난 경우를 분석해 보았는데,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모와 2급인 부로 구성된 장애인가정, 모학대가 함께 보고되고 있는 가족폭력이 3건, 술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는 가정이 5건, 부부불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5건 있었다. 부모 모두가 정신지체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이유로 이웃에게 청각손상이 오도록 폭력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였으며, 부모 모두가 자녀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정도의 장애인부부의 경우에 적절한 조치 없이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이동학대 뿐만 아니라, 배우자학대와 다른 형제가 함께 학대를 받고 있는 가족폭력의 경우나, 알코올이나 부부문제가 이동학대의 원인이 되는 상황도 파악될 수 있었다.

학대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경우와 학대 상황을 직·간접으로 관찰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이들이 기술하고 있는 정서와 관련된 문장을 분석하였다. 본인의 경험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심리·정서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나 타인의 관찰에 의한 보고인 경우에는 밖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경험의 질이 다르다고 사료되므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직접경험과 직·간접 관찰의 경우, 사례는 각 25, 22건으로 유사한 반면, 분석 결과, 빈도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1건으로 코딩되었다. 학대상황을 관찰한 사례 중 9건의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학대와 관련된 심리·정서·행동 상의 영향이나 현재의 상태를 보고하는 어휘들이 표현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불안이 15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괴로움이 13건, 분노가 12건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슬픔(11건)과 증오(8건) 순이었다. 그 외, 좌절감과 수치심, 외로움, 절망감과 자기 연민도 느끼고 있음이 분석되었다(표 11).

<표 11> 피학대자의 정서적 특성

(n=47, 중복코딩)

범주	내용	본인경험 빈도(건)	관찰보고 빈도(건)	계
불안	두렵다, 겁먹고 있다, 무섭다 공포심을 느낀다	6	7	15
	불안하다	2	-	
괴로움	힘든다, 고통스럽다, 아픈 현실, 괴롭다	7	-	13
	속상하다	1	-	
	스트레스 받다	3	2	
분노	억울하다, 울화통 터진다	4	1	12
	화난다	5	-	
	미치겠다	2	-	
슬픔	슬프다, 상처받았다, 눈물난다	6	-	11
	서럽다, 울었다	4	1	
증오	싫다, 밉다	7	7	8
좌절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4	-	5
	답답하다	1	-	
수치심	내 자신이 한심하다	1	-	3
	창피하다	3	-	
외로움	도와줄 사람이 없다, 외롭다 기댈 사람 없다	4	-	3
기타	짜증난다	2	-	2
절망감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1	-	1
자기연민	내 자신이 불쌍하다	1	-	1

아동학대의 장단기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서 불안, 우울, 분노, 긴장, 소외감 등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정서들이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불안, 소외감, 낮은 자아존중감(Oates · Forrest · Peacock, 1985), 분노와 공격성(Briere · Runtz, 1990)을 경험하며, 안동현(2000)은 신고된 아동에서 학대 후유증을 연구한 바, 아동이 학대를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경험할수록, 자아기능의 손상, 공격성 표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표 12> 아동학대의 영향

(n=47, 중복코딩)

영 향	기술된 내용	본인경험 (건)	관찰보고 (건)	계
심리·행동 상의 영향	겉먹고 막는 버릇, 먹고 군대식 대답 엄마발소리에도 가슴 떨림, 어린이집 차만 봐도 경기, 아빠가 언제 올지 몰라 잠도 못 자고, 다른 사람에게도 겉먹고 벌고, 어릴 적 생각하면 경기, 잠 못 자고, 숨도 쉬고, 남 자를 무서워하고	4	2	7
	집밖으로 안 나간다	-	1	
성격상의 영향	성격이 이상해졌다,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말투가 거칠어졌다, 신경질적이 되었다 성격이 바뀌어서 내 안에 악마가 피어나는	3	1	4
	기출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3	1	
바람	우리가족만 아니면 괜찮다	3	-	13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고아원이 낫다	3	-	
	다음 세상에서는 엄마와 안 만났으면 한다	1	-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2	-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2	-	
	아버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계모가 속이 터져 죽었으면 한다	1	1	
자살/살인 충동	다른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1	-	25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는 않다, 살고 싶다	3	1	
	(부모가)나를 죽일 것 같다	2	-	
	(부모를)죽이고 싶다/가해하고 싶다.	5	1	
	죽고 싶다	11	1	
자살시도	1	-		

본 연구에서는 의뢰된 상담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가 자신들에게 혹은 피해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표 12). 6건의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함으로써 행동이 변화하였거나 버릇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가해 부모의 발소리나 집근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거나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한 경우도 있었고, 과거의 학대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숨을 쉴 수 없는 정도가 되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함으로써 남자를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보

고도 있었다. 또한 심각한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끝에 자신의 성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때문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든가 말투가 거칠어졌다거나 신경질적이 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한 여자 성인의 사례에서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아동학대의 영향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체학대는 분노와 공격성(Briere and Runtz, 1990) 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 약물중독이나 자살충동(Farber and Joseph, 1985) 등의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신체학대, 성학대, 부모의 알코올 중독 모두는 우울증, 성인기의 정서적 문제나 행동 상의 문제 폭력적인 대인 관례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Fromuth, 1986; Gold, 1986; Lindberg and Distad, 1985).

한편 9건의 사례에서 자신의 바램을 기술하였는데, 자신을 학대하는 부나 모가 사라지거나 다른 가정이나 차라리 입양이나 시설로 가고 싶다거나 다음 세상에서는 다른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런 바램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를 살해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학대받은 아동이나 성인들이 자살충동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12건의 빈도로 이와 관련된 표현이 기술되었으며, 실제로 자살시도를 했다고 기술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살고 싶다거나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다는 간절한 소망과 함께 죽고 싶다는 표현들도 발견되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2건의 사례에서 죽고 싶다와 죽고 싶지 않다는 전체 상담내용 중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이 죽고 싶다와 가해 부나 모를 죽이고 싶다가 함께 표현된 사례도 2건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들어 인터넷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분야에서도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아동학대 상담에는 상담의뢰자들이 자발적으로 상담 사이트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면서 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 심리·정서적인 특징 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혹은 현장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실천이나 연구에 활용되지 못했던 아동학대 인터넷상담 자료를 양적 자료로 전환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천과 연구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여, 아동학대의 이해를 위한 보완적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체계에서의 인터넷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된 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의뢰자 유형과 상담의뢰자가 학대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경로, 상담의뢰 동기·목적 중 심으로 상담의뢰자 특성이 분석되었다. 상담의뢰자 유형은 피학대자 본인이 가장 높은 비율(53.2%)로 나타났고, 상담의뢰의 동기·목적은 아동학대 신고방법에 대한 문의(15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면,

정서적 고통에 대한 도움요청(14건), 문의·조언(12건), 하소연(10건), 신고·고발(4건), 정보확산(3건) 순이었다.

둘째, 학대유형 및 특성으로 학대상황과 학대유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총 47건의 학대관련 상담사례 중 본인이 학대를 직접 경험한 사례가 25건, 학대를 직·간접으로 목격한 사례가 22건이었는데, 학대 상황은 대체로 중복해서 발생됨이 확인되었다. 중복학대 중에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함께 발생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학대는 36건이 해당되었으며, 쇠줄, 쇠파이프, 칼 등 부적절하고 위험한 도구들이 사용되어, 고문수준으로 혹은 머리가 깨지도록, 11년 이상이나 학대를 받는 등,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학대를 받고 있음도 파악되었다.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47건의 학대관련 상담사례 중 68.09%인 33건으로, 이 중 가장 빈번한 상황은 위협, 욕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의뢰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사례도 상당 수 있었다. 또한 성학대 사례(3건)와 방임 사례(4건)도 보고되었다.

셋째, 피학대자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정형태 및 문제, 피학대자의 정서적 특성, 아동학대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성별은 여자가 남자의 2배 이상이 많은 24명(51.06%)으로 나타났고, 연령분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돌 안 된 갓난아기로부터 25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한 명에서 세 명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정형태의 경우, 일반가정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40.4%에 해당하는 1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한부모가정과 재혼가정에서의 학대관련 상담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부모가정 중에서는 모자가정 보다 부자가정이 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학대자의 정서적 특성 및 아동학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피학대자의 경우, 불안, 괴로움, 분노, 슬픔, 증오 등이 주요한 정서로 나타났고, 피학대자는 아동학대를 경험함으로써 행동이 변화하였거나 버릇이 생겼으며 학대자에 대한 살인충동, 자살충동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실천적·이론적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현황조사와는 달리 피학대아동·청소년의 상담 의뢰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 상담의 특성상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계층, 예컨대 아동, 청소년의 접근성이 매우 높았다. 이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홍보에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청소년에게 매우 접근성이 높은 매체이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2004년 10월 현재 20개에 불과한 지방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친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이고 갈등적인 상담을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운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학대 서비스에 있어서 인터넷상담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인터넷상담 의뢰자들의 상담의뢰 동기를 분석한 바,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한 신고문의와 심각한 정서적 고통에 대한 도움요청, 학대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포함한 문의나 조언 요청, 자살충동이나 가출, 살인 충동, 분노 등에 대한 단순 하소연, 학대상황에 대한 정보 확산 등 몇 가지 주요한 내용으로 범주화되었다. 즉, 아동학대의 예방과 개입을 위해 인터넷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신고 절차와 진행과정 및 신고의 의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살충동이나 가출충동 등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도 가능하도록 24시간 위기상담전화도 적어도 전국단위로 하나 이상은 개설을 검토해 볼 만 하다.

셋째, 상담의뢰자들은 대체로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학대를 보고하였고, 이러한 측면은 기존의 양적 통계 중심의 연구에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던 점들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이 피학대자의 관점에서 밝혀졌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내용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었으며, 이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시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피해자들의 가정형태와 가정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피해자들 중에 일반가정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40.4%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한부모가정과 재혼가정의 비율이 높았고 한부모가정 중에서는 모자가정 보다 부자가정이 배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몇몇 선행연구들(박은미, 1999; 홍강의, 2000)에서 모의 학대비율이 높다는 보고를 하면서 이유를 모가 양육을 맡는 시간이 부 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면,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의 경우 부가 양육을 맡게 됨으로써 학대의 빈도가 증가하며, 또한 적절한 양육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의 알코올이나 폭력 등의 문제로 모가 가출하거나 이혼한 경우의 자녀들이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겪거나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자가정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부모 이혼 후에 모와 살면서 모에 의한 학대상담을 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확인될 필요가 있다하겠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특히 부가 양육의 책임을 맡게 된 경우에 대한 적절한 자녀양육기술 및 안정된 양육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이 확인되었으며, 이혼과정에서 학대적 양육 환경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후유증으로 보고되어 왔던 다양한 심리·정서·행동상의 문제들이 피학대자 본인의 자기보고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피학대자들 본인들이 학대의 과정에서, 혹은 결과로 경험한다고 표현한 정서에 대한 어휘를 범주화하는 작업만을 통해서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불안, 괴로움, 분노, 슬픔, 증오, 좌절감과 수치심, 외로움 등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몇몇 사례의 경우에는 심각한 정도의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등 중복학대를 받음으로써 극도의 불안과 괴로움, 분노와 증오심을 유발하게 되고 자살이나 가해부모에 대한 살인충동 등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성격이 이상해지거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거나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등 심각한 수준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성인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피해자의 경우, 특히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적 개입방안의 모색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적절한 개입이 없는 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어왔으나 연구방법의 한계 때문에 장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아동학대의 장

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학대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임상군에 대한 연구나 일반인에 대한 양적연구, 혹은 종단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임상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학대의 영향이 과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Starr, MacLean and Keating, 1991), 일반인에 대한 양적연구나 종단적인 독립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는데 따른 연구설계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Belt and Abidin, 1996; Wind and Silvern, 1994; Wolfe, 1987). 이러한 관점에서, 의도적인 연구설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표현을 분석함으로써 아동기 학대경험의 장기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용분석이 아동학대의 장기영향에 대한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심각한 후유증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피해자가 14.6%에 달하는 바, 이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통한 아동학대의 장기영향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일곱째, 학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특히 학대의 정의와 유형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심각도와 상습성이 불분명하게 측정되어 치명적인 연구설계 상의 문제가 빈번하다는 점이 소수의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Belsky, 1993; Briere, 1988). 그러한 측면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표집된 자료가 아닌 아동학대의 실천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분석가능한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내용분석은 장기영향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방법임을 시사한다. 비관여적 측정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도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는 약간의 독창성이 있으면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루빈·바비, 1998: 458),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기에 본 연구의 의의나 아동학대 연구방법론으로서 내용분석연구의 의의가 그다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인터넷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아동학대예방사업 실천현장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이 현장을 위한 실천적 함의로 제안될 수 있다. 현재 피학대 경험이 있는 고위험 청소년 집단에 대해서는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의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신고, 상담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학대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 청소년 집단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적 서비스가 될 것이다. 또한 성인생존자 집단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들이 전문적인 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료적 개입과 예방의 차원에서 정보제공과 상담에 덧붙여 카페나 채팅방의 운영 등, 인터넷 활용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철희·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55-81.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권은주. 1977. “아동 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은령. 1997.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 학교내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 개

- 발을 위하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지윤. 2000.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혜련. 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정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라이프·레이시·피코. 2001. 배현석 역.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루빈·바비. 1998. 성숙진·유태균·이선우 공역.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나눔출판.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서면·리드. 2004. 유태균·이선혜·서진환 공역.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 서울: 나눔출판.
- 안동현. 2000. “신고된 아동에서 학대 후유증 연구.”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173-222.
- 윤혜미. 1995. “아동 학대 및 방임 사례와 신고제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조사.” 『한국 아동 복지학』. 3: 169-203.
- 윤혜미. 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 자녀 관계 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 복지학』. 5: 95-120.
- 이시연. 2000.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인식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익섭·이운로. 2004. 『사회복지조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지숙. 1997. “유아학대와 방임에 관한 유아 교사의 인식조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허남순. 200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3: 209-230.
- 홍강의. 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39-77.
- 황옥경. 2004.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와 과제.” 『한국의 아동보호: 회고와 전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기획포럼 자료집: 59-77.
- Ammerman, T. 1998. “Methodological Issues in Child Maltreatment Research”. pp. 117-132. in *Handbook of Child Abuse Research and Treatment*, edited by J. Lutzker. New York and London: Plenum Press.
- Augoustinos, M. 1987. “Developmental effects of child abuse: Recent findings.” *Child abuse & Neglect* 1(11): 15-27.
-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413-434.
- Belt, W., and R. Abidin. 1996. “The relation of childhood abuse and early parenting experiences to current marital quality in a nonclinical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0: 1019-1030.
- Briere, J. and M. Runtz.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 331-341.
- Briere, J. and M. Runtz. 1990. “Differential adult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three types of child

- abuse histories." *Child abuse & Neglect* 14: 357-364
- Carmen, E., P. Rieker, and T. Mills. 1984. Victims of violence and psychiatric ill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1: 378-383.
- Egeland, B., M. Breitenbucher, and D. Rosenberg. 1980. "Prospective study of the significance of life stress in the etiology of child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195-205.
- Egeland, B., D. Jacobvitz, and A. Sroufe. 1988. "Breaking the cycle of abuse." *Child Development* 59: 1080-1089.
- Farber, D. and A. Joseph. 1985. "The maltreated adolescent: Patterns of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9: 201-206.
- Freeman, Miriam L., and P. Valentine. Deborah. 2004. "Through the Eyes of Hollywood: Images of Social Workers in Film". *Social Work* 49(2): 151-161.
- Fromuth, E. 1986. "The relationship of childhood sexual abuse with later psychological and sexual adjustment in a sample of collage women." *Child abuse & Neglect* 10: 5-15.
- Gold, R. 1986. "Long term effects of sexual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 attributional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471-475.
- Kaufman, J., and D. Cicchetti. 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s in a day 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 Kaufman, J. and E. Zigler.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2): 186-192.
- Krippendorff, Klaus.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i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Lindberg, H. and J. Distad. 198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women who experienced childhood incest." *Child abuse & Neglect* 9: 329-334.
- Mash, E., C. Johnston, and K. Kovitz. 1983. "A comparison of the mother-child interactions of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during play and task situ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 337-346.
- Neuendorf, Kimberly A. 2002.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Oates, K., D. Forrest, and A. Peacock. 1985. "Self-esteem of abus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9: 159-163.
- Patton, Michael Quinn.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i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 Rogge, Mary E. and Mary Ellen Cox. 2001. "The Person-in-Environment Perspective in Social Work Journals: A Computer-Assisted Content Analysi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8(2): 47-68.
- Sroufe,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and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pp. 18-40). NJ: Erlbaum.
- Strarr, H., D. MacLean, and P. Keating. 1991. "Life-span development outcomes of child maltreatment". pp. 1-32. in H. Starr and A. Wolfe (Eds.),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 neglect*. NY: Guildford Press.
- Straus, M. 1980. "Stress and child abuse." pp. 86-103. C. Kempe and R. Helfer (Eds.) *The battered child*(3rd ed.).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ele, F. 1986. "Notes on the lasting effects of early child abuse throughout the life cycle." *Child abuse & Neglect* 10: 283-291.
- Sung, Kyu-Taik. 1998. "An Exploration of Actions of Filial Piety". *Journal of Aging Studies* 12(4): 369-386.
- Weber, Robert Phili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2nd Edi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Inc.
- Wind, T. and L. Silvern. 1992. "Type and extent of child abuse as predictors of adult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261-281.
- Wind, T. and L. Silvern. 1994. "Parenting and family stress as mediator of the long term effects of child abuse." *Child abuse & Neglect* 18: 439-453.
- Wolfe, A. 1987. *Child abuse*. CA: Sage.

Contents Analysis of Child Abuse Counselling Cases on the Internet

Lee, Si-Yeon

(Seoul Jangsin University)

Park, Eun-Mie

(Seoul Jang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child abuse counselling cases on the internet in order to get useful knowledges to understand child abuse and to search an effective system on the internet for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ntitative contents analysis, which is useful in transforming qualitative raw data into analyzable quantitative data. Fifty five cases were systematically selected from the internet site of child abuse counselling(www.childabuse.or.kr) and were analyzed by the method of contents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pecific tendencies in the child abuse counselling cases on the internet. Three major issues were reported here. As the first result, the category of clients, the path to find the abusive situation, and the motive and purpose to ask the counselling were presented. Secondly, abusive situations and abusive patterns were analyzed. For the last, the characteristics of sex, age, family pattern and family problem,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abused children and the adult survivors of child abuse were reported.

Several suggestions were proposed for the improvement of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 of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Key words: child abuse, counselling on the internet, contents analysis, counselling case

[접수일 2004. 9. 7. 게재확정일 2004. 10. 25.]